

범패의 문화적 가치 (梵唄의 文化的 價値)

洪 潤 植

- 一, 범패(梵唄)의 뜻
- 二, 범패(梵唄)의 유래(由來)
- 三, 범패(梵唄)의 내용(內容)
- 四, 범패(梵唄)의 문학적 위치(文學的 位置)
- 五, 의식(儀式)과 범패(梵唄)
- 六, 불교음악(佛敎音樂)과 민속음악(民俗音樂)
- 七, 結 論

1. 범패(梵唄)의 뜻

고대 원시신앙(古代 原始信仰)에서 행(行)한 제천의식 혹(祭天儀式 或)은 기도의식(祈禱儀式)에서 절대신(絶代神)에 대(對)한 찬탄(讚嘆)과 기원(祈願)을 바라는 간절(懇切)한 마음을 노래와 춤으로서 표현(表現)한 사실(事實) 찾아 볼 수 있고 음악(音樂)의 기원(起源)도 역시(亦是) 여기서 연유(緣由)한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無理)가 아닐 것 같다.

옛날 우리 조상(祖上)들도 동맹(東盟), 무천(舞天), 영고등(迎鼓等)의 의식(儀式)에서 가무음곡(歌舞音曲)을 수반(隨伴)하여 신(神)에게 드리는 무한(無限)한 감사(感謝)와 후일(後日)의 무사(無事)함을 기도(祈禱)하였던 것을 알 수 있거니와 이렇게 음악(音樂)은 신앙(信仰)과 결부(結付)되어 발전(發展)하였으며 종교(宗教)가 있는 곳에 음악(音樂)이 없을 수 없고 음악(音樂) 또한 종교(宗教)와 더부러 불가분(不可分)의 위치(位置)에 있었던 것 같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우리나라에 불교(佛敎)가 들어온 이후(以後) 새로운 종교적(宗敎的) 감각(感覺)에 의(依)하여 새로운 종교음악(宗敎音樂)의 발생(發生)을 요구(要求)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재래신앙(在來信仰)의 독점물(獨占物)이었던 종교음악(宗敎音樂)은 원시신앙(原始信仰)의 쇠퇴(衰退)와 더부러 차차 신앙(信仰)의 대상(對象)에서 벗어나 혹(或)은 무속(巫俗)으로 혹(或)은 민속음악(民俗音樂)으로 발전(發展)하였으며 부처님에게는 말씀이 있고, 마음이 있고, 소리가 있어 그 소리만 들어도 득오(得悟)의 견지(見地)에 이르고 기음향인(其音響忍)으로서 낙정토(樂淨土)의 왕생(往生)을 얻으려고 하던 고차적(高次的)인 신비성(神秘性)을 불교음악(佛敎音樂)이 발생(發生)하였던 것이다.

이는 불신력(佛信力)과神通력(神通力)을 가지고 열반(涅槃)의 세계(世界)를 심증(心證)케 하여 이를 결(缺)한때에는 세속화(世俗化)하여 민속음악(民俗音樂)으로 변조(變

調)되어 갔던 것이라 하겠다.

그후 불교(佛敎)의 발전(發展)과 더불어 다양(多樣)한 불교의식(佛敎儀式)에서 많은 문화적 유산(文化的 遺産)을 남기었거니와 현행 민속음악중(現行 民俗音樂中)에는 불교(佛敎)를 소지(素地)로 한 것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자체(其自體)가 차지하는 佛敎的인 신통력 내지 신앙심(神通力 乃至 信仰心)의 결(缺)함에서 차차 민속적(民俗的)인 것으로 변전되어 갔고 그것을 토대(土臺)로 다른 불교적인(佛敎的)인 민속음악(民俗音樂)도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중(中)에도 오직 심오(深奧)한 불신력(佛信力)을 가진 음곡 즉 불교음악(音曲 卽 佛敎音樂)이 있으니 이를 일러 범패(梵唄)라 하는 것이다.

2. 범패(梵唄)의 유래(由來)

범패(梵唄)의 기원(起源)은 묘음보살(妙音菩薩)의 소작(所作)이라고도 하고 중국 위(中國 魏)나라 조식(曹植)이 연못에 고기떼가 이상(異常)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범패(梵唄)가 불리워 진 것은 하동 쌍계사(河東 雙溪寺)의 『진감대사대공탑비문(眞鑑大師大空塔碑文)』에

『雅善梵唄 金玉其音 側調飛聲 爽快哀願能使諸天歡喜 永於遠地流傳學者滿堂…至東國習…魚山之妙音』이라 한 것을 보아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진감대사(眞鑑大師)가 처음으로 당(唐)나라에서 (835)받아들인 것이 그 효시(嚆矢)인 것 같다.

또한 『自西域中夏泊子 我東各有 其源…吾 東聲敎 相傳者…眞鑑之胃』(전남가지산보림사 유범음보판본(全南迦智山寶林寺 有梵音譜板本)에 依함)라 한 것을 보아 인도(印度)에서 발생(發生)하여 서역(西域)을 통(通)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 특(特)히 원호문유산집항주자사 마군 신도비(元好問遺山集恒州刺史 馬君 神道碑)에 『上所見 殆 佛陀出現 而遼東 無塔廟尊像 不可得 唯回鶻인 범패지 소유지인각(梵唄之 所有之因取)』라고 한 문헌(文獻)에 의(依)하면 서역(西域)을 통(通)하여 들어온 사실(事實)을 더욱 명백(明白)히 해주고 있다

이 기사(記事)가 고려조(高麗朝)에 해당(該當)되고 근조(近朝)에 안성군 청룡사 주지 홍월운화상(安城郡 靑龍寺住持 洪月運和尚)이 구법차(求法次) 중국(中國)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조선범패(朝鮮梵唄)가 방불 몽고승려 소창지성운운(彷彿 蒙古僧侶 所唱之聲云)한 것을 보아 고려조(高麗朝)의 일반문화(一般文化)가 몽고(蒙古)의 영향(影響)을 받았듯이 이 범패(梵唄)에도 다소 변조(多少 變調)를 가져왔고 몽고(蒙古)의 범패(梵唄)를 서역인(西域人)이 소취(所取)하고 있었던 사실(事實)을 미루어 봐서 서역(西域)의 영향(影響)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근조(近朝)에 들어와서는 범민선사(法敏禪師)와 혜감대사(慧鑑大師)가 범패(梵唄)를 중흥(中興)시켜 이를 배우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事實)을 알 수 있다.

(보림사범패보판본)(金玉其綿綿不絕 至法敏禪師 傳之慧鑑之後 出數十數餘人 皆以聲敎…其徒之盛)(寶林寺梵唄譜板本)

이외 조선실록 세종, 세조, 성종(以外 朝鮮實錄 世宗, 世祖, 成宗)편에서도 범패(梵唄)가 성(盛)했다는 사실(事實)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성(盛)하게 불리워 오든 것이 언제 어떠한 연유(緣由)에서 현재(現在)와 같은 인멸상태(湮滅狀態)를 초래(招來) 하였나 하는 것이다.



의식무용(儀式舞踊)인 나비춤

성종실록 임오조(成宗實錄 壬午條)에 대사헌 박건 등(大司憲 朴健 等)이 범패교습소(梵唄敎習所)(?)인 정업원(淨業院)을 철거(撤去)할 것을 상소(上疏)한 것을 보면 승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에서 오는 영향(影響)도 있겠으나 오히려 같은 승단(僧團)에서도 제(齊)바지중이라하여 범패(梵唄)하는 이들을 천시(賤視)한데 있지 않은가 한다.

또한 근조(近朝)에는 법민선사(法敏禪師), 운현선사(雲玄禪師), 서산대사(西山大師) 증구선사(曾具禪師) 등(等) 많은 선사(禪師)들에 의(依)하여 불리워지고 가르쳐 지던 것이 지금(至今)은 그들에게는 찾아 볼수 없고 오히려 멀리하는 경향(傾向)이 있으니 이 점(點) 중요(重要)한 연구과제(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법민선사(法敏禪師) 성교지거(聲敎之巨)벽 겸통내외서사(兼通內外書史)라는 문헌(文

獻)에 의(依)하면 선교성(禪敎聲)의 귀일(歸一)을 엿볼수 있다는 점(點)에서…

3. 범패(梵唄)의 내용(內容)

범패(梵唄)는 범성 범음 어산 인도(梵聲 梵音 魚山 인도(引導)소리 묘음(妙音)이라고도 하며 이것을 부르는 사람을 어장(魚丈) 또는 인도중이라고 한다.

과거(過去)에는 법사(法師), 선사(禪師), 어장(魚丈)은 제각기(各己) 장기(長技)를 들어 내어 심(甚)한 대립(對立)이 있었다고 하니 법사(法師)는 몹시 거만(倨慢)하여 거만(倨慢)중, 선사(禪師)는 겉으로는 표시(表示)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만(阿曼)이 짝차서 아만(阿曼)중 어장(魚丈)은 이 부처님의 소리만이 제일이라 하여 교만(驕慢)하기 짝이 없어 교만(驕慢)중이라는 칭호(稱號)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만(驕慢)중의 장기(長技)는 무엇인가?

범음 즉 불음(梵音 卽 佛音)이요 법음(法音)으로서 이소리를 들으면 청정이육 적멸진실(淸淨離俗 寂滅眞實)의 의(義)에 순수히 따라 열반(涅槃)을 심증(心證)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화엄경(華嚴經)에 설(說)한 『불(佛)의 언음(言音)을 써서 체(體)가 된다고』한 것을 상기(想起)시키며 불(佛)의 언음(言音)을 듣는 것은 정토(淨土)에 생(生)하며 성(聲)을 염(念)하는 것은 정토(淨土)의 덕(德)을 얻는것이라 하겠으며 다시 말하여 묘음(妙音)을 듣는 것은 방편화신(方便化身)의 정토(淨土)라고도 하겠다. 기음(其音)을 구별(區別)하여 일음원음 광대음 고간이 삼세일공설… 이음울지케도 진퇴삼규 팔통팔달… 운운(一音圓音 廣大音 無間而 三世一功說…而音律之軌道 進退三規 八通八達…云云)

또한 범성자 총거(梵聲者 總擧)라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區分)하고 있다.

범성추뢰진 팔음창묘향(무량수경에 의함)범성자총거 팔음자 발탄(梵聲摛雷震 八音暢妙響(無量壽經에 依함)梵聲者總擧 八音者 別歎)

1. 최호성 성애묘고(崔好聲 聲哀妙故)
2. 역료성 언변요고(易了聲 言辨了故)
3. 조화성 대소득중고(造化聲 大小得中故)
4. 유연성 성연성고(柔軟聲 聲軟聲故)
5. 불오성 언무착실고(不誤聲 言無錯失故)
6. 불여성 성웅랑고(不女聲 聲雄郎故)
7. 존혜성 성무위숙고(尊慧聲 言有威肅故)
8. 심원성 성원고(深遠聲 聲遠故)

이차묘음 수관음고 운창묘향(以此妙音 酬觀音故 云暢妙響)

이상(以上)의 것은 사상적(思想的)인 면(面)을 더듬어 보는데는 좋은 재료(材料)가 되겠으나 그 음률(音律)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가사(歌詞)를 부친 악보(樂譜)의 형식(形式)을 갖춘 것이 없어 알길이 없고 다만 동음집(同音集)에서 찾아 볼수 있는 사성(四聲)(현성(玄聲) 입성(入聲) 상성(上聲) 평성(平聲)으로 그 악전(樂典)의 윤곽(輪廓)을 알수 있으나 이 사성(四聲)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난제(難題)로 남아있다.

참고(參考)로 그 표기법(表記法)을 간단(簡單)히 소개(紹介)한다면 현성(玄聲)-청이원(淸而遠), 상성(上聲)-여(勵)기거(擧), 입성(入聲)-직이정(直而定), 평성(平聲)-애이안(哀而安), 등(等)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현재(現在)남아 있는 범패(梵唄)의 녹음 채보사업(錄音 採譜事業)과 더불어 이를 풀이하여 과거(過去)의 것과 비교(比較)해 보는 것이 커

다란 의의(意義)를 가질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범패(梵唄)

그런데 다만 구전(口傳)의 방법(方法)으로 전(傳)하여 온 음곡(音曲)에 의(依)하여 분류(分類)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조(調)로서는 북(北)쪽 지방(地方)의 경산조(京山調)와 남쪽 지방(地方)의 팔공산조(八公山調)가 있는데 경산조(京山調)의 특징(特徵)은 비교적(比較的) 빠르고 억양(抑揚)의 굴곡(屈曲)이 많은데 있고 팔공산조(八公山調)는 완만(緩慢)하고 유장(悠長)한 것이 그 특징(特徵)이라 하겠다.

이상 양조(以上 兩調)가 다 같이 장음성(長音聲)(짓소리) 단음성(單音聲)(홀소리)의 음곡(音曲)으로 구분(區分)되어 있는데 짓소리는 가사(歌詞)한자를 가지고 1분(分)내지 10분(分)까지도 길게 뽑는소리를 말하고 이에 비(比)하여 비교적(比較的) 짧게 빼는 소리를 홀소리라한다.

또 이것을 의식(儀式)의 절차(節次)와 가사(歌詞)의 내용(內容)을 가지고 구분(區分)하면

- ① 편계성(片偈聲)-계송(偈聲)
- ② 착어성(着語聲)-천도식
- ③ 청문성(淸文聲)-기도의식(儀式)
- ④ 유치성(由致聲)-축원문 전송(祝願文 前頌)
- ⑤ 다계성(茶偈聲)-도장계송(道場偈頌)-돌면서 창(唱)함
- ⑥ 가영성(歌泳聲)-찬불가(讚佛歌)

⑦ 축원성(祝願聲)-축원문(祝願文)

⑧ 헌화계(獻花偈)-공양(供養)

⑨ 송자성(頌子聲)

등(等)으로 구분(區分)한다. 이외 존시식성 환욕성 시식성등(以外 尊施食聲 歡浴聲 施食聲等)도 있으나 이상(以上)의 구분(區分)과 중복(重復)된 것이 많다. 끝으로 이 범패(梵唄)의 특징(特徵)을 말한다면 「멜로디」는 있어도 박자(拍子)가 일정하지 않은 점(點)이며 박자(拍子)가 없는 가운데도 자유(自由)로 박자(拍子)를 마칠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현행 민속음악(民俗音樂)의 음곡(音曲)에서 범패(梵唄)와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가곡(歌曲)이라 하겠으며 이 가곡(歌曲)이 범패(梵唄)의 영향(影響)을 받는 것으로 생각(生覺)된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소리는 잘하는 명창(名唱)일지라도 불교적(佛敎的)인 소양(素養)이 없는 사람은 이를 부를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범패(梵唄)의 특징(特徵)이라 하겠다.

4. 범패(梵唄)의 문학적 위치(文學的 位置)

범패(梵唄)가 기악(器樂)으로 연주(演奏)되는 것이 아니라 성악(聲樂)으로 불리워 지는것이므로 반드시 그 가사(歌詞)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 역시 어떤 문헌(文獻)에 나타난 재료(材料)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內容)을 고찰하기에 난점(難點)이 있으나 다만 여기서는 이해구 박사(李惠求 博士)가 밝힌 적산원강경의식(赤山院講經儀式)과 일일강의식(一日講義式)에서 불리워졌다는 범패(梵唄)의 가사(歌詞)를 일본승 원인 자각대사(日本僧 圓仁 茲覺大師)의 입당구법 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찾아 현재(現在) 불리워지고 있는 범패(梵唄)의 가사(歌詞)와를 비교(比較)하여 문학사상(文學史上)에 미친 영향(影響)이 무엇인가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기의식(其儀式)에서 범패(梵唄)를 불렀다는 것을 『大衆同音 稱嘆佛名 音曲一依新羅 以似唐音 至願佛開微密 大衆同音唱云…等頌梵唄云云』 한 일본문헌(日本文獻)에서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가사(歌詞)의 내용(內容)을 살펴본다면 지면관계상(紙面關係上) 일일이 열거(列擧)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구분(區分)만 가지고 살펴 본다면

- ① 유탄불명(梳嘆佛名)-불덕(佛德)을 찬(唱)함
- ② 운하어비경(云何於比經)-운하득장수 운하어차경(云何得長壽 云何於此經)
구의도피안(究意到彼岸)…열반경(涅槃經)
- ③ 계향정향해탈향(戒香定香解脫香)-공양(供養)(소향시 찬(燒香時 唱)함)
공양정방무량불(供養丁方無量佛)
- ④ 회향사(廻向詞)-찬불(讚佛)에 이어서
원이차공덕 보급어 일절 아등여중생개공성불도…운운
(願以此功德 普及於 一切 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云云)
- ⑤ 처세계 여허고우(處世界 如虛空偈)-청전법수(淸轉法輪)
- ⑥ 원례(元禮)-원귀의(元歸依)
 - 일절태경 자귀의불(當願衆生 解體大道 發無上意)
 - 자귀의법(自歸依法)…(심입경장지혜여해(深入經藏知慧如海))

○ 자귀의승(自歸依僧)…(통리중생 일절무(統理衆生 一切無)에)

이상(以上)은 적산원 강경의식(赤山院 講經儀式)이고 다음은 일일강의식(一日講義式)에서 살펴본다면, 음다유굴곡 해산화시 각유소송(音多有屈曲 海散花時 各有所頌)이라 하여 산화시(散花時)에 창(唱)하는 다음과 같은 가사(歌詞)가 있다. 원아재도장 향화공양불 아인차계 다문실 서궁천처십방무 원이차공덕…개성불도 향화공양불(願我在道場 香花供養佛 牙人此界 多聞室 逝宮天處十方無 願以此功德…皆成佛道 香花供養佛)

위에서 살핀 것은 신라인(新羅人)이 당(唐)나라에서 신라고유(新羅固有)의 음곡(音曲)으로 불렀던 범패(梵唄)의 가사내용(歌詞內容)이었고 다음은 현용 석문의범(現用 釋門儀範)에 나오는 설교의식(說教儀式)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원원례(元原禮)-아금지차일주향운운(我金持此一注香云云)

(2) 찬불게(讚佛偈)-천상천하 무여불(天上天下 無如佛)…일절 무유여불(一切 無有如佛)

(3) 십이불참회제없장(十二佛懺悔除業障)…승장불운운(勝藏佛云云)

(4) 십악(十惡)-참회찰생중죄운운(懺悔剎生重罪云云)

(5) 개경계(開經偈)-무상심심(無上甚深)……

(6) 십념정근(十念精勤)…남무원계대사 천상천하 무여불 원이차공덕 지개공성불도 (南無元界大師 天上天下 無如佛 願以此功德 至皆共成佛道)

(7) 삼귀의(三歸依)

위에서 대략(大略)이나마 신라시대(新羅時代)에 불리웠던 범패(梵唄)의 가사(歌詞)와 현행 범패(現行 梵唄)의 가사내용(歌詞內容)을 비교(比較)해 본다면 양자(兩者) 공(共)히 다소(多少) 자구(字句)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찬불 공양 회향 적의등(讚佛 供養 廻向 的依等)의 內容을 같이 하였다는데는 이의(異意)가 없으며 특(特)히 주목(注目)을 끄는 것은 보현보살(普賢菩薩)의 십종원(十種願)과도 그 內容에 있어서 공통점(共通點)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십종원가(卽 十種願歌)의

- | | |
|--------------|--------------|
| ① 수경제불(數敬諸佛) | ② 칭탄여래(稱嘆如來) |
| ③ 광수공양(廣修供養) | ④ 참회업장(懺悔業障) |
| ⑤ 수희공덕(隨熹功德) | ⑥ 청전법수(請轉法輪) |
| ⑦ 제불왕세(諸佛往世) | ⑧ 상수불학(常修佛學) |
| ⑨ 향순중생(恒順衆生) | ⑩ 보개회향(普皆廻向) |

등(等) 그 시상(詩想)에 있어서 불국사(佛國寺)의 건설(建設)과 일절중생(一切衆生)으로 하여금 신앙(信仰)케 하려는 서원사상(誓願思想)이 중심(中心)이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고려(高麗)에 걸쳐 널리 불리워졌다는 균여대사 소작(均如大師 所作)인 향가(鄉歌)가 이 보현보살십종원가(普賢菩薩十種願歌)를 제재(題材)로 했다는 사실(事實)을 볼때에 범패(梵唄)의 가사(歌詞)가 차지하는 문학적 위치(文學的 位置)는 특(特)히 불교(佛敎)를 국교(國敎)로 하였든 나려간(羅麗間)에는 그 시대(時代)의 시상(詩想)에 많은 영향(影響)을 주었을리라 믿어진다 다음은 역대선사(歷代禪師)들의 오도송(悟道頌)과 기타(其他)의 계송(偈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흔히 지금도 선사(禪師)들에 의(依)하여 계송(偈頌)을 송(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범패중(梵唄中)에도 계송(偈頌)을 많이 창(唱)하고 있는데 이 계송(偈頌)을 분류(分類)

하면 경(經)에서 나온 것과 선사(禪師)들의 오도송(悟道頌) 기타(其他)의 송(頌)으로 구분(區分)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사(禪師)들의 계송(偈頌)에 대(對)한 것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一) 태고(보우)(太古(普愚))의 송(頌)

① 불조여산사 무국실탄가(충숙왕육년-1332년) 감로사에서

(佛朝興山詞 無國悉吞却(忠肅王六年-1332年) 甘露寺에서

② 타파(打破)우관후(關後) 청풍취태고(淸風吹太古)-1350년 정월(正月) 7일 5경(更)에 활연 대오(大悟)하고 송(頌)을 지음

(2) 도의국사가영(道義國師歌詠)

공시간경사오대 조계문옹시난개(空時間鏡上五台 曹溪門翁是難開)

(3) □허당(□虛堂)의 자경가(自慶歌)

이 밖에도 고승(高僧)들의 법어록(法語錄)에서 많은 계송(偈頌)을 찾아 볼 수 있는데 (현재 300여수(三百餘首) 수집) 그 形式에 있어서는 오자사구 칠자사구(五字四句 七字四句) 등(等)을 유학(儒學)의 영향(影響)을 받았으나 그 내용(內容)에 있어서는 견성오도(見性悟道)의 심증(心證)을 역력(歷歷)히 표현(表現)하고 있으며 또한 음곡(音曲)에 부처 송(頌)하지 않을 수 없는 견지(見地)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많은 계송(偈頌)을 수집(蒐集)하여 범패(梵唄)와의 관계(關係)를 비교(比較)하며 더욱 많은 연구(研究)를 필요(必要)로 하겠거니와 이 계송(偈頌)이 차지하는 문학사상(文學史上)의 비중(比重)을 다루어 본다는 것도 중요(重要)한 과제(課題)가 되겠다.

5. 의식(儀式)과 범패(梵唄)

이 범패(梵唄)가 의식(儀式)의 일종(一種)임에는 이의(異義)가 없으나 주(主)로 어떤 의식(儀式)에서 불리어 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불교적(佛敎的)인 요소(要素)를 지닌 의례적(儀禮的)인 국가적 행사(國家的 行事)로는 주(主)로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성행(盛行)했던 연등회(然燈會)와 팔관회(八關會)를 들 수 있고 이외(以外)에 사문(沙門)들이 신도(信徒)들에게 공양(供養)의 초대(招待)를 받고 행(行)한 반승(飯僧)(제승(齊僧)이라고도 함) 등(等)이 있는데 이 의식(儀式)에서는 범패(梵唄)를 불렀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고려사(高麗史) 팔관회(八關會) 연등회(然燈會) 편에 의하면 太樂令邦呈九成雅樂...百戲歌舞於前使令官奏鄉唐樂設火山 雜戲奏妓樂以觀이라고 하며 향악(鄉樂) 唐樂(당악) 아악(雅樂) 백희(百戲) 기악(伎樂) 잡기(雜妓) 등을 찾아볼 수 있어도 범패(梵唄)를 불렀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반승(飯僧)의 경우(境遇)에도 마찬가지로 당악 아악 잡희 이외(唐樂, 雅樂, 雜戲, 以外)의 것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特異)한 사실(事實)은 의례적(儀禮的)인 국가적 대행사(國家的 大行事)에는 불교적(佛敎的)인 것일지라도 수입악(輸入樂)인 아악(雅樂)과 재래(在來)의 신앙(信仰)에서 기신구복(祈神求福)의 제례(祭禮)가 세속화(世俗化)되어 신심(信心)과는 별개(別個)의 성격(性格)을 띄고 백희, 잡기, 가무등(百戲, 雜妓, 歌舞等)이 행(行)하여졌으며 범패(梵唄)는 오직 불신력(佛信力)과 직결(直結)될 수 있는 위치(位置)에 있어서 설교의식 강경의식, 영산제, 수록제, 기타(說敎儀式, 講經儀式, 靈山齋, 水陸齋, 其他)의 제

등(齊等)의 의식(儀式)에서만 불리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범패(梵唄)의 참뜻을 여기서 또한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6. 불교음악(佛敎音樂)과 민속음악(民俗音樂)

종교(宗敎)와 음악(音樂)과의 관계(關係)를 말하면서 불교음악(佛敎音樂)과 민속음악(民俗音樂)과의 관계(關係)를 대략(大略) 살핀바 있으나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具體的)으로 그 예(例)를 들어가면서 상호(相互) 어떤 위치(位置)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구명(究明)해보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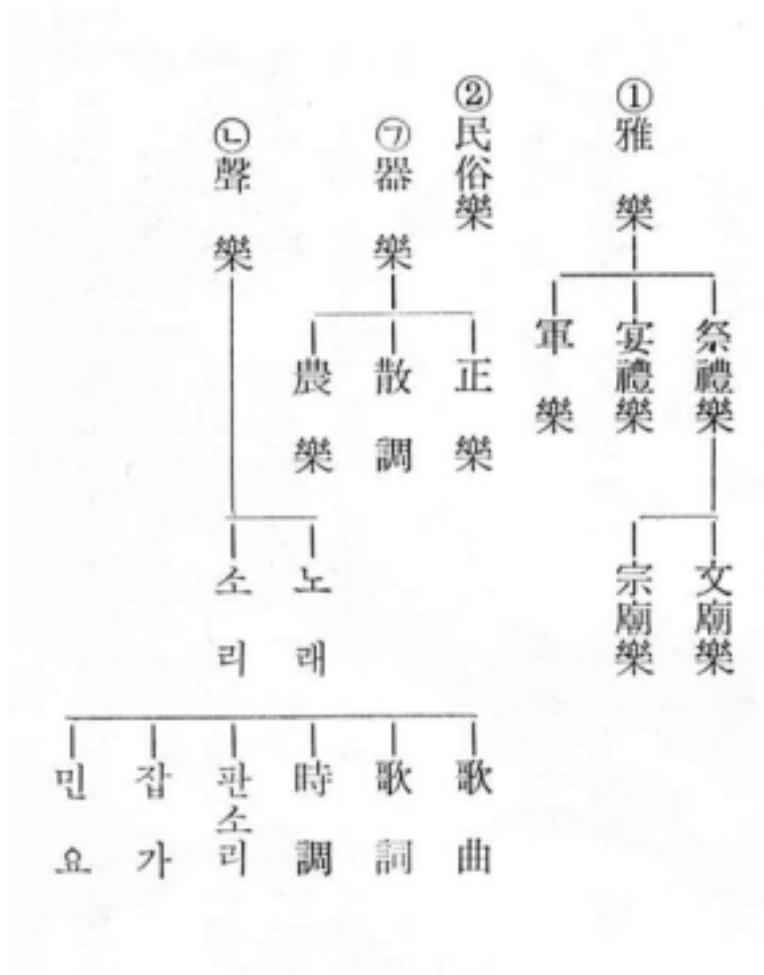
불교음악(佛敎音樂)이란 작법귀감(순조(純祖) 26年 서기(西紀) 1826年 백과저(白坡著))에 수록(收錄)된 현행 종단내(現行 宗團內)의 의식(儀式)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민속음악(民俗音樂)이란 불교적(佛敎的)인 것일자라도 이미 세속화(世俗化)되어 종교적(宗敎的)인 것보다도 일반화(一般化)된 미술적(美術的)인 차원(次元)에서 관찰(觀察)할 수 있는 분야(分野)로 구분(區分)하고 이를 종목(種目)을 들어 세분(細分)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불교음악(佛敎音樂)

- ① 창(唱)-범패(梵唄)
- ② 무용(舞踊)-바라춤 나비춤

(2) 민속음악(民俗音樂)

민속음악(民俗音樂)이란 우리 국악(國樂)의 일분야(一分野)로서 가장 중요(重要)한 위치(位置)를 차지하는 것으로 먼저 아악(雅樂)과 민속악(民俗樂)으로 구분(區分)하지 않을수 없다.



계보

아악(雅樂)이란 궁중음악(宮中音樂)으로서 고려예종시(高麗睿宗時) 송(宋)나라에서 받아들인 의식적(意識的)인 귀족음악(貴族音樂)이라 볼 수 있고 민속음악(民俗音樂)이란 일반서민대중(一般庶民大衆)의 근저(根底)에서 발생(發生)하고 진정한 민중(民衆)의 생활감정(生活感情)을 토대(土台)로 발전(發展)한 대중음악(大衆音樂)이라 볼 수 있겠다. 기 기원(其 起原)은 민족(民族)의 발상(發祥)과 더불어 같이 하였고 그 발전(發展) 역시(亦是) 민족(民族)의 운명(運命)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以上) 양자(兩者)를 도시(圖示)하면 전면도(前面圖)와 같다.



현재 일본(現在 日本)에 전(傳)하는 범패악보(梵唄樂譜)(一)

또한 잡가(雜歌)는 경기잡가, 남도잡가, 서도잡가(京畿雜歌, 南道雜歌, 西道雜歌)로 구분(區分)하고 민요(民謠)는 경기, 영남, 호남, 서도, 관동, 제주 민요 등(京畿, 嶺南, 湖南, 西道, 關東, 關北, 濟州 民謠 等)으로 나눌수 있다. 이외(以外) 좌악(?) (巫樂)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여기에 범패(梵唄)를 합(合)하여 우리 민족음악(民族音樂)의 총체(總體)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상(以上)의 분류(分類)에서 불교음악(佛教音樂)과 관계(關係)가 깊다고 할 수 있는 몇가지를 민속음악(民俗音樂)에서 골라 비교(比較)해보기로 하겠다. 첫째 민속음악(民俗音樂)의 기악(器樂)에 속하는 정악(正樂)을 들수 있다. 이는 영산회상곡(靈山會想曲)을 말하며 풍류(風流)라고도 하는데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상현(上靈山, 中靈山, 細靈山, 上鉉), 도도리, 염불, 타령, 군악(念佛, 打鈴, 軍樂)으로 나누어 지고 뒷풍류로서 양청 우조 계면등(羽調 界面等)으로 되어있다.

일설(一說)에 의(依)하면 신라 헌당시 처용(新羅 憲唐時 處容)이 개운포(開雲浦)에 나타나 이상(異常)한 얼굴을 하고 춤추고 노래한 일이 있는데 후세(後世) 사람들이 이를 본따서 처용무(處容舞)하였고 이춤의 반주(伴奏)로서 연주(演奏)한 악곡(樂曲)이 영산회상곡(靈山會想曲)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구(成俱)의 악학궤범 처용무조(樂學軌範 處容舞條)에 의(依)하면 학연화대 처용무합설(鶴蓮花臺 處容舞合設)에는 기생(妓生)들이 창사(唱詞)를 부르며 돌면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원래(元來) 이 음악(音樂)은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相佛菩薩)이라는 가사(歌詞)를 가진 불교음악(佛教音樂)이었는데 차차(次次) 세속화(世俗化)하여 주(主)로 무용의 반주(伴奏)로서 연주(演奏)되는 민속음악중 명곡(民俗音樂中 名曲)의 일익(一翼)을 차지하는 오늘날의 영산회상곡(靈山會想曲)으로 발전(發展)한 것 같다. 이를 범패(梵唄)와의 관계(關係)를 좀 더 구체적(具體的)으로 고찰(考察)하기 위하여 현용 석문의범(現用 釋門儀範)의 영산제의(靈山齊儀)와 범음집(梵音集)의 영산회작법(靈山會作法)에서 범패(梵唄)로 불리어지는 가사(歌詞)를 비교(比較)해 보기로 하겠다.



현재 일본(現在 日本)에 전(傳)하는 범패악보(梵唄樂譜)(二)

① 영산제의(靈山齊儀)

燃香偈 喝燈 燃燈偈 喝花 舒讚偈 佛讚大直讚 中直讚 小直讚 告丹開啓□ 觀音讚-四方讚 嚴淨偈舉佛…三禮請 四對請…六對供養加指祝願

② 영산회작법(靈山會作法)

喝香 玉早削成山 勢聳云運

燈香偈戒定慧解知見香云云 燃燈偈 大願爲 大悲油云云 喝花牧丹花含妙香…讚佛偈法讚偈…告香偈 三千界云云 嚴淨偈 道場清淨 動佛偈前早成佛云云 舉佛 南無靈山 教主…靈山起經 靈山會上佛菩薩 三項禮一心項禮南無盡虛空遍法界 六法供養 各執偈願 我一身化多身 (西紀一七一三年 四月)

이상(以上)의 양자(兩者)를 비교(比較)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일치(一致)된 점(點)을 찾아 볼 수 있고 여기에 영산회불보살곡(靈山會佛菩薩曲)의 가사(歌詞)를 비교(比較)하여 현영산회상곡(現靈山回想曲)과의 관계(關係)를 살펴본다면 좀더 자세(仔細)한 것을 알 수 있겠으나 이를 찾아볼 길이 없음이 심(甚)히 유감(遺憾)스러운 일이다 다만 문제(問題)는 영산회(靈山會)라는 다같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현재(現在) 불리어지는 범패중(梵唄中)에서 찬불가(讚佛歌)의 일종(一種)인 가영성(歌泳聲)이란 것이 있는데 이 가영성(歌泳聲)도 보통가영(普通歌泳)과 영산가영(靈山歌泳)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종단(宗團)에서 행(行)한 제제중(諸齊中)에서도 제일(第一) 그 규모(規模)가 큰 것이 영산제(靈山齊)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산회(靈山會) 본래의 뜻은 영산(靈山)은 인도(印度) 영취산(靈鷲山)의 준말이고 석존(釋尊)이 영취산(靈鷲山)에 있으면서 설법(說法)하던 때의 모임을 말한다. 이상(以上)의 고찰(考察)에서 영산회작법(靈山會作法)과 영산제의(靈山齊儀)에서 범패(梵唄)를 불리운 사실(事實)과 가사(歌詞)의 공통점(共通點)을 찾아 보았고 영산회불보살(靈山會佛菩薩)의 악곡(樂曲)이 불덕(佛德)을 찬양(讚揚)하고 불석살(佛昔薩)에 공양(供養)한다는 사상적(思想的)인 동기(動機)에서 불리어 졌다는 것을 볼 때 전기 양기 작법(前記 兩記 作法)과 더부러 부가분(不可分)의 관계(關係)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영산제 영산가영등(靈山齊 靈山歌泳等)을 통(通)하여 영산(靈山)이 갖는 의의(意義)는 보다더 고차적(高次的)의 위치(位置)에서 불덕(佛德)을 찬탄(讚嘆)하는 것임을

알았다. 여기서 민속음악 중(民俗音樂 中)의 영산회상곡(靈山會想曲)은 처음에는 범패(梵唄)로 불리어지는 것이 노래가 춤을 수반(隨班)하게되자 그춤의 발전(發展)과 세속화(世俗化)로 인(因)해서 후일(後日)에는 춤의 반주(伴奏)로 남게 되면서부터 기악(器樂)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악곡(樂曲)에 있어 완만(緩慢)하고 유장(悠長)한 것이 범패(梵唄)가 주는 느낌과 같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성악(聲樂)에서 그 예(例)를 찾아보고자 한다. 성악(聲樂)에는 우선 가곡(歌曲)과 포념(布念)(포시염불(布施念佛))을 들 수 있는데 전자(前者)는 악곡(樂曲)에서 그 영향(影響)을 받았다면 후자(後者)는 그 가사(歌詞)에서 영향(影響)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가곡(歌曲)이 범패(梵唄)의 영향(影響)의 내용(內容)에서 잠깐 소개(紹介)한바 있으나 좀더 자세(仔細)한 설명(說明)을 부쳐본다면 과거(過去)에 불리어진 범패(梵唄)의 악보(樂譜)가 없어 확실(確實)하게는 말할 수 없으나 칭탄불명장인장경 장인음다유굴곡(稱嘆佛名長引唱經 長引音多有屈曲)이니 한 것은 악곡(樂曲)의 다유굴곡(多有屈曲)과 장인(長引)함을 말함이며 가곡(歌曲)의 악보(樂譜)와 일본(日本)에 전래(傳來)하는 범패(梵唄)의 악보(樂譜)를 비교(比較)해보아도 가곡(歌曲)이 범패(梵唄)만치 다유굴곡(多有屈曲)함을 알수 있고 이 점(點) 범패(梵唄)의 특징(特徵)이요 가곡(歌曲)에 영향(影響)을 준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포념(布念)의 경우(境遇)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포념(布念)이란 남도(南道)소리의 일종(一種)인데 그 가사(其 歌詞)에 있어서 범패(梵唄)로도 부르고 포념(布念)으로도 부른다는 것이다.

그 예(例)를 들어보면

○ 사방찬(四方讚)

- | | |
|-------------------|-------------------|
| 1. 세말력결도장(世末力潔道場) | 2. 세남방득청량(世南方得清涼) |
| 3. 세서방구정토(世西方俱淨土) | 4. 세북방수안당(世北方水安唐) |

○ 엄정계(嚴淨偈)

도장청정무가하 삼보천룡차지 아석지송묘진언 원사자비밀가부
(道場清淨無可何 三寶天龍此地 我昔持誦妙眞言 願賜慈悲密加簿)

○ 참회계(懺悔偈)

아석소조제악업 종가구의지소생(我昔所造諸惡業 從可口意之所生)

이상(以上)의 것은 범패(梵唄)에서도 포념(布念)에서도 찾아 볼수 있고 그 음곡(音曲)의 차이(差異)를 말한다면 범패(梵唄)는 글자 일자(一字)에도 굴곡(屈曲)이 많으나 포념(布念)은 일자일음(一字一音)으로 부르는 것이 그 특이(特異)한 점(點)이라 하겠다.

이외(以外)에도 불교음악(佛敎音樂)과의 관계(關係)를 고찰(考察)하는데 몇가지 좋은 예(例)가 있겠으나 더욱 많은 연구(研究)와 더부러 후일(後日)에 발표(發表)하기로 하겠다.

7. 결 론(結 論)

이상(以上) 여러 가지 면(面)에서 범패(梵唄)의 이모저모를 대략(大略)이나마 살펴 보았다. 우리 문화(文化)의 대부분(大部分)이 불교적(佛敎的)인 영향(影響)을 받았고 현존(現存)하는 문화재(文化財) 역시(亦是) 불교적(佛敎的)인 것이 태반이란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거니와 이러한 보급자리에서 자라난 범패(梵唄) 역시(亦是) 우리 겨레와 근저(根底)를 흐르는 가락이요 거기에서 문화(文化)는 꽃이 피고 정서(情緒)가 승

화(昇華)하여 음악(音樂)에 있어서나, 문학(文學)에 있어서나, 사상적(思想的)인 면(面)에 있어서 그 문화적(文化的)인 공적(功蹟)이야말로 실(實)로 높이 평가(評價)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필자 국악예술학교교사(筆者 國樂藝術學敎教師)>